

「깐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3회)

朴魯哲

一, 『사티아,그라하』小論(續)

이리하여 『깐디』는 남(英國)을 원망치도 안코 남에게 呼訴한일도 업다. 오직 印度民族의 集團的 實行力을 發揮하여 非 協同的 『사티아·그라하』의 劍으로 그 無道한 英帝國主義의 暴力을 挫折하는대있다. 이는 곧 眞理와 愛와 勝利의 偉力으로 그 『스와라지』를 結成하는 捷徑인줄안다. 『깐디』는 말하얏다.

『사티아·그라하』는 敗를 아지 못한다. 『사티아·그라하』는 眞理와 愛를 爲하여 鬪爭할지라도 疲勞함이업다. 『사티아·그라하』는 어느 境遇에 잇서서는 眞理와 愛와 勝利를 發揮한다. 假令『사티아·그라하』의 實行者가 被殺되고 쏘는 投獄된다 하더라도 그의 死는 救護와 勝利의 死이다. 監獄은 勝利와 自由의 首門이다』라고 이 얼마 眞□한 豪言이라하랴 이는 受動的 抵抗의 直接行動에 對한 그 實行者의 엄청난 鍵案이라 안 홀수 업다.

『깐디』의 親舊중에 어느 洋人이 그의 受動的 抵抗主義의 直接行動에 好感을 갖지 안는者 잇섯다. 『깐디』는 基督과 釋迦의 行蹟을 들어 그에게 辯證한 일이 잇스니 卽 基督이 『예루살렘』(Hierosolyma)聖殿에 들어가서 物品賣買하는 者를 鬪격으로 몰아내신 것과 釋迦께서 種姓制度를 打破코저 一切無生의 平等說을 高唱하여 頑昧한 婆羅門教徒에게 精神上 큰 衝動을 준일이 잇스니, 당시 四種姓의 階級制度를 嚴守하는 婆羅門僧侶들은 佛陀의 新主義를 非難하기에 마지 안엇다. 그러나 釋迦는 一平民의 態度를 가지고 勇敢히 그 아페 나가 種姓解放을 主張하면서 新 傳道主義에 盡□하였다는 例徵으로서 自己의 受動的 抵抗主義의 直接行動을 辯護한일도 있다. 이로 보면 『깐디』는 비단 溫微한 說法的 言論運動으로만 滿足함이 아니 었다. 보다도 民衆의 結合力을 더 鞏固하기 爲하여 쏘는 敵의 彈壓과 그 惡法을 短期間으로 撤廢하기 爲하여 大衆의 先頭에서서 受動的 直接行動을 實現한 것이다. 그러타 『

엠·케이 칸디-』는 이미 宣言하되 『現今印度運動의 方法은 從前의 言論運動과 달라서 實行的 直接運動에 限한다』라고. 『칸디-』는 또 『사티아그라하』에 對하여 말하였다.

『「사티아·그라하」는 抵抗의 境遇에서나 壓迫을 당할 旣에 그 힘을 가장 顯著이 發揮한다. 「사티아·그라하」의 教義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在來의 家庭生活에 對한 愛의 法則을 政治的 生活로 擴張하고자 하는대 지나지 않는다. 「사티아·그라하」는 表의 愛와 ,哀에 眞理를 짚은 貨幣와 가튼 것이니 이는 自由로 通行하여 無限한 價値를 가지고 있다』라고.